



2023년 11월 19일(제1167호) 연중 제33주일(세계 기년회 이의 날)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복음에서 ‘하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고 하시며 탈렌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종들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저마다의 탈렌트를 받았습시다. 하지만 그 탈렌트를 사용하는 모습은 다르지요.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올 때까지 다섯 탈렌트를 받은 종과 두 탈렌트를 받은 종은 자신이 받은 만큼의 탈렌트를 더 벌어들여 ‘착하고 성실한 종’이라 불리지만, 한 탈렌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숨겨둔 채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었고 결국 그 종은 나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각자가 받은 탈렌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시기 위해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습시다.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이

“탈렌트”

모든 것은 하느님의 사랑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탈렌트 역시 하느님의 사랑에 의한 것이겠지요.

사랑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향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써 살아가는 원동력은 사랑의 실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탈렌트를 사랑으로 표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탈렌트를 얼마나 받았느냐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받은 탈렌트를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그것을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느냐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도구로 잘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탈렌트를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승수(미카엘) 신부
비행(육군 제25보병사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잠언 31,10-13.19-20.30-31

회 답 송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제 2 독 시

1테살 5,1-6

복음 관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복 음

마태 25,14-30

영 성 제 송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히느님의 종 최양입 토미스 신부의 시집』

열 번째 시집

우리 가련한 포교지는 왜 이다지도 불행합니까! 장수 신부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시기 위해 그렇게도 많은 고초를 그처럼 여러 해 동안 겪으시다가 천신만고 끝에 겨우 입국하셨으나, 단 하루도성한 몸으로 편안히 지내지 못하고 고생만 하시다가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조선에서는 조정이나 온 백성이 우리 선교사들과 우리 성교회를 몹시 비난합니다. 왜 선교사들이 몰래 입국하고, 왜 몰래 가르치며, 은밀히 신앙을 실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천주교가 가증스럽고 수치스러우며, 서양에서조차도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종교와 우리 서적에 기록된 교리는 어떤 내용이든지 한결같이 백성을 기만하기 위해 만들어낸 교활한 속임수라고 조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천주학생이들은 서양 나라의 군주들이 모두 열심히 천주교인들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그런데 그 말이 정말이라면, 왜 그 군주들이 사소한 일을 위해서는 많은 함선을 중국과 일본, 그리고 자주 우리나라에 보내면서, 왜 인생의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인 종교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가? 만일 선교사들이 굉장한 함선을 타고 공개리에 뿔뿔하게 조선에 들어오고, 또 저들이 조선에서 전교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가 충분한 증명을 들어서 조선 정부에 부탁한다면, 그들의 임무 수행에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을 것이다. 진정으로 프랑스 정부가 조선에서 천주교를 공인받기를 원한다면, 틀림없이 조선 정부는 이것을 들어줄 것으로 확신한다” 고 조선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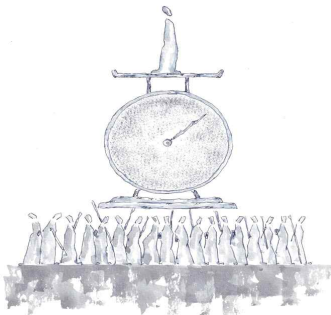
지난 봄에 (배티의) 세 학생을 강남의 거룻배를 태워 상해로 보냈는데, 그들이 (말레이시아의 페낭) 신학교까지 무사히 도착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건강하게 잘들 있는지요? 신학교 교장 신부님은 우리 신학생들 각각의 성격을 지금쯤 잘 파악하셨을 줄로 압니다만, 제 편에서 교장 신부님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히느님의 종 최양입 토미스 신부의 시집』 발췌, 청주교구 양입교회시인구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저울질



가끔은 내가 누군가를.
가끔은 누군가가 나를.

꿈임없이 확인하며
살아가지.

그렇게 우리는
자신만의 저울을

피곤하게 사는 우리들.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탈렌트의 비유



본 작품은 오늘 복음 말씀에 나오는 탈렌트의 비유를 묘사한 작품으로 그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왼쪽 건물 앞에 돈(탈렌트)을 나누어주는 주인과 종들이 보이고, 건물 문 앞 쪽에도 무언가를 건네주는 듯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

그림 전경에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어디론가 끌려가는 듯한 인물이 보이는데 이는 복음 말씀에서도 나오는,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라는 부분을 묘사한 것이다.

레오나르도 고티에(1561년~1641년)
1576년경 제작, 판화 / 국립미술관, 워싱턴 D.C. 소장

“(오늘) 복음에서 주인이 여행을 떠나며 종들에게 재산을 맡긴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종들의 시명은 각자에게 맡겨진 탈렌트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한 탈렌트’는 당시 일꾼이 6,000일, 약 16년 반 동안 일하여야 벌 수 있는 액수며, ‘두 탈렌트’는 약 33년, ‘다섯 탈렌트’는 약 82년 동안 일하고 받는 품값의 총합입니다. 이 비유는 각자에게 다르게 맡겨진 조건과 재능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히느님 나라의 완성을 준비하라는 초대입니다.” <매일미사 ‘오늘의 묵상’ 발췌>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33주일: 입천해군 최연수 신부

◆ 교구장 동정

- 교구민을 위한 교구장 집전 미사
 때·곳: 11월 19일(주일) 11:0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 군중후원회 지도신부 간담회
 때: 11월 22일(수) 10:30, 군중교구청
- 국장회의
 때·곳: 11월 21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한국가톨릭원목자협회 2023년 추계 상임위원회의
 때·곳: 11월 22일(수) 15:00, 화상회의

“신교의 열매, 세례성사!” - “아버지와 이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마태 28,19)